

—인사말—

「교오또시 기본구상」은 21세기의 교오또의 그랜드비전으로서, 2025년까지의 교오또시민의 생활과 마을조성에 관하여 대체적인 방향성과 이념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구상은, 시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전국, 또는 세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살려, 시민공모위원을 포함한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오또시기본구상등심의회가 약 1년에 걸쳐 심의를 거듭한 결과 요약한 답신으로서, 시회(市會)의 의결을 얻어 책정한 것입니다.

이후 이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한 교오또시 전체의 「자기 기본 계획」 및 각 구(區)의 개성을 살린 매력 있는 지역 조성의 지침이 될 「행정 구(區)별 계획」을 책정하여, 시민 여러분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하며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계획 체계

<도시이념(도시의 이상형)>

세계문화자유도시 선언

(1978(쇼와53)년 10월 15일 선언)

도시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 이상이 세계현상의 바른 인식과 자신의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지며, 시민이 그 이상 실현에 노력한다면, 그 도시는 세계사에 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의 교오또를 세계문화자유도시로 선언한다.

세계문화자유도시란 전세계 사람들이 인종, 종교, 사회체제의 상이를 초월하여, 평화로운 가운데, 이곳에 자유롭게 모여,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교오또는 오래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해 온 천년의 수도이지만, 오늘날에 있어, 단지 과거의 영화만을 자랑하며 고립해 살아서는 안 된다. 널리 세계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뛰어난 문화를 계속 창조해 나가는 영구히 새로운 문화도시여야 한다. 우리는 교오또를 세계문화교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원래 이상의 선언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 우리 시민은 그 높은 이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조용히 결의하며, 이를 맹세하는 바이다.

Korean
한글

↓
<시정의 기본방침>

교오또시 기본계획

(1999(헤이세이11)년 12월 17일 책정)

21세기 교오또의 마을조성의 방침을
이념적으로 나타낸 장기 구상

목표년차 : 2025년

<부문별 계획>

자기기본계획
교오또시 기본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전시(全市)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한 시책·사업을 나타낸 계획

목표년차 : 2010년

<지역별 계획>

행정구별(區別) 계획
교오또시 기본구상에 기초한 각 구의
개성을 살린 매력 있는 지역조성의 지
침이 될 계획

목표년차 : 2010년

교오또시 기본구상

머리말

여기에서 내건 「교오또시 기본구상」은 21세기의 최초의 4반세기에 있어서 교오또의 그랜드비전을 묘사한 것이다.

교오또시는 1978(쇼와53)년 교오또가 목표로 하는 도시의 본연의 모습을 「세계문화자유도시」로 하여, 이를 세계에 선언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3(쇼와58)년에는 전통을 살리며,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마을을 목표로, 2000년이라는 미래를 전망한 「교오또시 기본구상」을 책정했다. 이 구상에 기초한 마을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5(쇼와60)년에는 「교오또시 기본계획」을 책정한 것에 이어 1993(헤이세이5)년에는 「신 교오또시 기본계획」을 세워 21세기의 문화 수도를 목표로 「헤이세이의 중심도시 조성」을 진행시켜 왔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민족, 종교, 사회체제의 상이를 넘어 평화로운 가운데 자유로이 모여, 열린 문화교류를 행하는 도시로서, 교오또는 「세계 속의 교오또」라고 하는 커다란 시야 속에서 받아 들여졌다. 예를 들면, 1996(헤이세이8)년에는 세계역사도시 연맹의 수습 역으로 선출되었으며, 다음해 1997(헤이세이9)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회의 개최지로 뽑혀 교오또의 정서가 채택되는 등, 그 역사적인 지혜를 살려 도시문명의 본연의 자세를 솔선하여 추구하는 역할이 세계로부터 기대되어졌다.

또한 세기의 변환점을 맞아, 사회와 경제 정세는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형태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다. 그 변화는 메이지 이래의 일본사회를 움직여 온 원리 혹은 전후 일본이 목표로 해 온 사회구조의 근본에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근본 자세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점이 있다. 우리는 역사의 이 전환기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생활 자세 중 살릴만한 점, 고칠만한 점을 하나하나 잘 확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와 그곳에 사는 시민의 생활설계를 해야한다.

이에 우리 교오또시민은 우리가 바라는 2025년까지의 생활과 마을조성을 시민의 관점에서 언급한다. 교오또시는 그 기본구상에 나타난 시민의 생활과 마을조성의 실현을 향하여,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정의 운영을 꾀해 간다. 또한 시민을 비롯하여, 교오또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조직이 이 구상실현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1장 교오또시민의 생활방식

제1절 문명의 대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일본은 전후의 황폐로부터 일어나, 괄목할 만한 속도로 「풍요로운」 사회, 세계 유수의 장수사회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세기의 변환점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경제성장을의 저하와 소자(少子)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큰 변화 등 사회짜임새의 큰 전환을 강요당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속한 소비의 확대가 가져온 폐기물의 대량발생과 환경파괴의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주위의 생명과 공생을 꾀해 온 그 문화적 전통을 간과한 결과로써, 스스로의 생명과 문명의 존속에 위협을 받는 듯한 사태에 이르렀다. 언제까지고 팽창하는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의 도시문명의 모습에 맞서, 우리들은 환경과의 조화를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차세대에 대한

우리들의 큰 책임이기도 하겠다.

작금의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 행정, 금융, 기업경영,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확실한 것, 안전한 것으로만 알고, 관행으로 여겼던 여러 사회적인 제도나 구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방지한다면, 21세기는 신뢰의 붕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회 기반을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과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시점에 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현 사회에 대한 여러 세대간에 신뢰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구축해 나갈 것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생활의 기본과 관련된 것으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어진다. 그것도 그 대부분이 한 도시의 문제로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타도시 등과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들은 현재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시야에 넣어 가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며, 그에 기초한 사회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제12장 교오또시민의 생활방식

우리 교오또시민은 비와꼬소수의 개착을 비롯하여, 일본 최초의 초등학교 설립과 시전(市電)의 부설 등 「교오또 정책」이라 불리는 근대화정책으로 전국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근대화와는 별도의 생활방식을 여려 모양으로 유지해 온 종종적인 도시문화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인정해도 좋다. 교오또는 선쟁재해로 인한 파멸적인 피해를 면한 몇 안 되는 대도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느끼는 감성과 사고방식이, 지금도 도시의 한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잘라 없애기는커녕, 계승해 가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다.

이 의욕을 새로운 것에 대한 의욕과 잘 조화시켜 실현해 가는 것은 확실히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풍부한 문화와 역사의 측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시대 운명에 대한 여러 대안을 당연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이지 이후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 가운데, 달성된 것과 잃은 것, 전후 사호의 민주화와 고도성장 가운데 얻은 것과 버려진 것, 이러한 것들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시민이어야 하겠다.

제13장 교오또시민의 도심의 풍경

우리 교오또시민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안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 정비에 힘쓰고 함께, 효율이나 경쟁을 과드하게 중시한 나머지 대량소비를 반복해 온 지금까지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 그것과는 다른 절도 있는 생활방식을 제시할 만한 도시문화를 배양해 왔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교오또시민은 1200년을 넘는 역사 속에서 사립성 높은 시민문화를 낳고 연마해 왔다. 예를 들면,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꾸려 가는 자치전통을 소중히 지켜왔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집앞뜰기로 상징되듯 독특한 생활습관을 갖쳐왔다. 전통과 혁신의 드ಡ게 보는 간장관계 속에서 마을을 운영해 왔다. 이 마을에는 산학(產學)이 함께 자유롭고 선구적인 기풍이 있으며, 이를 길러가기 위해서 배움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왔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우지한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지님과 함께 정교한 기술과 높은 부가가치를 동시에 지닌 물건을 만드는 문화를 길러왔다. 안권존중과 복지추진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시도를 계속해 왔다.

교오또는 또한 절대의 마음이나 종교적인 치유의 문화가 있다. 그러함이 도심의 풍경이나 지역행사 등 생활의 여러 장면 속에 침투해 있어 사람들에게 깊은 정취를

주고 있다. 게다가 녹음이 우거진 자연환경이 비교적 도심의 가까운 곳에 있어 이곳에 사는 사람이나 방문한 사람, 모두가 깊은 정신적 충족 속에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교오또의 시민문화는 시외의 사람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아 왔는데, 이는 단지 전통을 그저 지켜온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국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교오또시민이 노력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근은 고도 경제 성장기의 획일적인 가치관과 이에 따른 토오교오집중화 현상 등 사회 경제 정세의 큰 물결에 휘말려 그 선구적인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 활성화에도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교오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교오또는 언젠가 도시로서 벽에 부딪힐 절박한 위기감마저 있다.

산업과 관광의 침체, 공장과 대학의 시외 유출, 문화의 창조력과 발신력의 저하, 도심의 공동화, 정취 있는 거리의 소실 등 교오또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오또가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에 혁명하게 대처하여, 앞으로도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해가기 위하여, 우리 교오또시민은 지금까지 긴 시간을 들여 길러온 사물에 대한 감성과 사고방식 하나 하나를, 교오또시민의 특성인 원점으로 되돌아가 21세기 생활의 기본으로서 다시금 단련해 나가야 한다.

제4절 금후 교오또시민의 생활방식

우리 사회는 여러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구조나 제도에 대한 신뢰는 우리 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신뢰,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웃과 이웃과의 신뢰, 시민과 행정간의 신뢰에서 물건 생산과 경제활동의 신뢰,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환경에의 신뢰에 이르기까지 신뢰는 사회운영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여겨 온 이러한 신뢰가 지금에 와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교오또를 보더라도 고도의 기술과 세심한 품질관리를 자부하는 물건 생산, 절도와 신용 있는 상거래, 성세하고 두터운 접대문화 등 예로부터 「교오또물건」「교오또풍」이라는 명칭에 상징되어 온 문화에 대한 신뢰가 적잖게 손상되어져 오고 있는가 하면, 동네나 학구 등에서 볼 수 있는 지역주민의 상호신뢰도 옛날만큼의 확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교오또라고 하는 마을이, 내외로부터 얻어 온 두터운 신뢰를, 21세기에 있어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교오또는 현재 큰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앞으로의 생활과 마을의 본연의 모습을 묘사하여, 이를 실현해 가는 가운데 신뢰가 기초가 되는 사회를 지향해 간다. 그리고 우리 교오또시민이 지금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쌓아 온 생활과 물건생산의 모습과 자치전통을 이러한 미래를 향한 마을조성에 크게 활용해 나간다. 다시 말하여, 교오또시민의 자랑거리를 금후의 마을조성에 살리며, 엮어 가는 가운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가 시민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간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참여해 감으로 인해,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생활의 이상을 세계에 앞서 발견하며 실현시키고 싶다.

제2장 시민생활과 마을조성

교오또의 각 지역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문화가 있다. 또한 교오또의 마을에는 일, 배움, 쉼을 위해 시외로부터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여러 종류의 교류가 있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교오또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깊이 사귀는 가운데, 누구라도 교오또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오또에 대한 애착을 갖으며,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고 여겨질 만한 마을로 만들고 싶다. 교오또를 생활에 평안함이 있고, 마을에

번영이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장소로 하고 싶다. 이를 위한, 생활과 마을조성의 방침을 여기에 언급한다. 그러한 생활과 마을조성을 교오또시민의 특성을 살려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산뢰를 기초로 한 사회가 구축되어진다고 믿는다.

제1장 마을이 있는 마을

1 모든 사람이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마을

우리 교오또시민은 어린이도, 고령자도, 여성도, 남성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또한 국적이나 민족, 가문이나 성장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한 장소를 확인하고, 자기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많은 마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피차별 민족이 모여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선언을 한 전국 스이헤이샤(水平社)의 설립이나 선구적인 장애자교육과 복지사업 가운데 설립된 교오조라이토하우스 등 교오또의 인권 존중 문화와 선진적인 수행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넘치는 시민생활을 만들어 간다.

모든 사람이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마을은 먼저 시민생활에 선백의 여지가 많으며, 생애를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풍부한 마을이며, 누구라도 평등하게 취직의 기회를 갖는 풍성한 마을이다. 그것은 또한 고령자가 혼자서도 쇼핑 등 일상 생활 행동이 가능하며, 그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마을이기도 하며, 오랜 인생 경험 가운데 여러 지혜를 촉작하며, 그것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재로서 존중되어지는 마을이다. 그것은 한층 더 나아가, 장래의 교오또를 짊어질 풍성한 마음과 뛰어난 사회성을 몸에 지닌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환경이 학교, 가정, 지역을 통하여 갖추어진 마을이며,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에 접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배워 나가는 마을이다. 그리고 여러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귀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공공심을 깊이 몸에 지닌 다음 각각에 충족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개방적이며 마음 편한 마을이다. 이와 같은 마을은 시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안고 있는 어려 곤란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슴깊이 받아들여지며, 상호 깊은 신뢰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서로 드는 점을 볼 수 있는 마을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깊이 존중되어야지가 생각이나 행동의 기본이 되는 마을,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받아들여지며, 그러한 교류 속에서 보다 풍성한 인간관계가 생겨나는 마을을 우리 교오또시민은 만들어 간다.

2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주고, 도움 받는 마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른 장면에서는 도와주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연한 상호지원의 연결이, 앞으로 디더욱 불가결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 교오또시민은, 필요한 때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길이 누구에게라도 쉽게 보이도록 정비된 마을을 지향한다.

소자(少子)고령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나 아이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사는 보람,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는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제도나 고용·취업 형태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짜임새가 소자(少子)고령사회, 남녀공동 참가사회에 맞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옛날 지역사회가 지녔던 주민의 상호지원의 짜임새를 현대의 생활환경에 맞을 만한 형태로 다시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모든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등 육아와 아이의 자립에 대한 지원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마을조성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마을은 누구라도 심신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기회나 시설도 많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적절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질병에 걸려도 충분한 요양을 받을 수 있고, 서두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나 난병이 있는 사람, 고령자가 늘 살고 있던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여유 있는 마음가짐 가운데 지낼 수 있을 만한 서비스나 지원 네트워크가 충실히 있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주며, 도움 받는 마을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교오또를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나 다가 올 세대의 생활에 불안을 품는 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마을로 한다.

3 누구라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마을

우리 교오또시민은 매일의 생활의 장이 안전하며, 녹음이 우거지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적은 마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목조 건축물이나 막다른 길이 많은 교오또거리의 특색을 배려하면서 지진 등의 대규모의 자연재해에 강한 마을조성을 추진하며, 도시시설이나 건축물의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나 연구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살림과 함께 재해에 강한 조직 만들기를 추진한다.

우리는 또한 교통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기초적인 조건을 갖춘 마을,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간다.

우리들은 한층 더 경제활동을 적정생산·적정소비·최소폐기의 순환경 속에서 운영하며, 매일의 생활 속에서 환경에 부담을 가능한 한 주지 않는 생활을 함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공교통 우선형의 교통체제를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걷는 것이 즐거워지는 마을조성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교오또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에 절도를 지켜 누구라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간다.

제2절 번영이 있는 마을

1 활력 넘치는 마을

우리 교오또시민은 물건 만들기의 전통을 살려 산업경제에 있어 활기롭고 번영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간다.

교오또에 지반을 둔 여러 산업활동이 한층 더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술에도, 기업문화에도 깊은 신뢰를 두며, 상호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산업관련도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도정보사회, 환경조화형 사회,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오또 독자의 산업시스템을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농림업에서 관광산업·서비스산업까지 고품질·긴 수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 생산 기술이나 고도의 정보기술, 나아가서는 세련된 디자인이나 참신한 기획력을 지닌 시스템이다.

또한, 재활용사회나 멀티미디어사회에 대응한 환경과 복지분야 등에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함과 함께, 대학 등에 있어서의 연구·교육시스템이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 기업의 본사기능이나 연구·개발기능을 지원하는 여러 기반이 충실히 마을조성이 요구되어진다.

더 나아가, 지역에 밀착한 산업의 진흥을 꾀하며, 심오한 매력과 따뜻한 접대의 마음기짐으로 관광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에 의해 벤처 사업 등 새바람에 넘친 산업의 당당자가 활약할 무대가 열리고 동시에 안정된 고용기회도 창출된다. 마을이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배우며 일하는 장이 늘어남과 함께 세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아곳을 무대로 스스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이렇게 하여 교오또가 세계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계속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매력 넘치는 마을조성을 추진해 간다.

2 매력 넘치는 마을

우리 교오또시민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산출되고, 배양되고, 연마해 온 시민문화를 더디욱 성숙시켜 보다 풍성하고 두이함이 있는 시민문화를 만들어 간다.

시민문화의 성숙이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인간의 존엄」에 깊이 관여하여, 물질적인 레벨에서 정신적인 레벨까지, 사회적인 것에서 예술적인 것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고 풍요로우며, 그 구체적인 이미지까지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문화의 모습을 의미한다. 교오또라고 하는 땅에 그와 같은 성숙한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사의 불각이나 불상·그림두루말이 등의 유형문화재, 전통 예술이나 계절 별 행사 등의 무형문화재, 녹음이 우거진 자연이나 역사를 흡뻑 들려 쓴 아름다운 가옥과 거리, 창조성 높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통산업에서부터 첨단기술산업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군, 사람들의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 온 종교문화, 시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는 전통공예, 차도나 꽃꽂이 등의 전통문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예술문화, 나아가서는 시민이 지닌 독특한 미적 감각이나 생활의 지혜 등 교오또가 길러 온 전 문화자원 간에 활발한 교류를 일으켜, 널리 국내외와의 다채로운 교류를 통해 그것들을 현재 이상으로 살려갈 필요가 있다.

시민문화의 성숙에는 또한 마을조성을 주체적으로 넘나해 나갈 인재 육성이 불가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나 교육의 역할이 크다. 또한, 생애에 걸쳐 스스로의 능력을 닦고 높이는 기회도 많이 필요하다. 이에 중요한 것은, 교오또시민이 시간을 들여 길러 온 몇 개의 타월한 능력을 다시금 상기하여 차세대를 향해 한결 더 연마해 나가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진품을 찾아내는 비평안(「김정」의 문화)이며, 돌건 만들기의 정밀한 기교(「기교」의 문화)이며, 모험적인 정신(「시도」의 문화)이며, 창조적인 학습·연구에의 의욕(「궁구」의 문화)이며, 방문객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접대」의 문화)이며, 절도 있는 생활태도(「끌맺음」의 문화)이다.

이러한 시민문화의 성숙에는 시민이 각기 자기 자신을 살려,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의 변화함과 유유자적의 장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시꿔 속에서야말로 마을에 참된 번영이 생겨난다. 시민간의 신뢰 있는 결속도 매일의 이와 같은 즐거운 교류를 통해서 비로소 생겨난다. 이 경우 지켜야 할 문화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도시로서의 조건점비에 한정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장래로 연을하는 생활의 지혜와 상상력의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이와 같이 교오또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마을로서 그 손세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매력 넘치는 마을조성을 추진해 간다.

제2장 교오또시민이 추구하는 문화

이러한 시민생활이나 교오또에서 행해지는, 혹은 교오또를 발신지로 해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편리성·쾌적성에 뛰어나며, 일상생활에 휴식함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다양한 경제·문화 활동을 떠받쳐 주는 기반이 확실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의 부담경감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도시의 골격이 되는 교통 축 등 사람이나 물건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해 주는 안전·쾌적한 교통 체제를 비롯하여 공원·녹지, 교육·문화·스포츠 시설, 주택·주거 환경, 하천, 상하수도 등의 기반을 정비함과 함께 역사적 풍토나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거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산림이나 농지의 보전을 꾀한다. 동시에, 많은 시민이 다양한 정보자원을 공유함과 함께 세계를 향해 적극적인 정보 발신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계속하여 유동화·진화하는 통신이나 방송분야의 디지털화의 움직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

또한 지역의 개성이나 자연적·역사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전·재생·창조」를 기본으로 한 마을조성을 추진한다.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자연적 풍토인 삼면의 산들, 문화재와 사적이 짐재하는 산록부, 그리고 여유와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지 일대는 자연과 역사적인 경관 보전에 힘쓴다. 전통적인 가옥이나 거리가 많이 유지되고, 상업·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직(職)·주(住)·문(文)·유(遊)가 복합하는 역사 깊은 시가지는 조화를 바탕으로 한 도심의 재생에 힘쓴다. 그리고, 남부는, 고도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21세기 교오또의 새로운 활력을 담당하는 창조적인 마을 조성에 힘쓴다. 이러한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각기 지역의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기능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다채롭고 개성적인 기능을 가진 마을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교오또 전체로 보아도 균형 잡힌 양호한 도시환경이 형성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마을조성은 시의 영역을 넘어, 주위의 인접사회와 잘 협력할 때만이 실행될 수 있다. 간사이지역 속의 교오또, 일본 속의 교오또, 세계 속의 교오또를 강하게 인식하면서, 우리들은 이 마을조성을 추진해 간다.

제3장 시민이 만드는 교오또의 마을

이러한 시민의 생활과 마을조성은 시민과 시정이 함께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하나 과제 해결을 향하여 노력해 가는 가운데 비로소 실현된다. 그리고, 외국 국적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정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구조나 형태가 구체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진다고 믿는다.

제1절 시민의 시정에의 주체적인 참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는 원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주민이 주체적으로 발언하고, 조정하며,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겨남과 함께 이러한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높아져 가고 있다. 복잡다면적인 구조를 가진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시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시정에 대한 기대와 요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이 행정에 참가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레벨에서 다양한 구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시민의 사회활동에서도, 복잡하고 치밀한 네트워크가 생겨나, 시민 측에서의 시정참가 조건은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그 예로, 보건, 복지, 교육, 스포츠, 방재, 마을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시민참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절실한 관심사이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그것들에 참여하는 방법과 절차가 더우기 섬세하게 고안되어,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오또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시정참여, 나아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관여에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결속을 실현해야지, 또한 사회의 어떠한 구조를 실현해야만, 행복한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는가를, 자기자신의 문제로서 차근차근 생각해가고 싶다.

시민에게 보다 친근한 지방공공단체로 권한이 이동되는 지방분권의 흐름은,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시책이 우선되는 시대로부터 지역의 개성이나 독자성을 중시하는 시대로의 거다란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혁 속에서, 시정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지만,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저성장·소자(少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후 더욱더 재정상의 제약이 심하게 될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과 행정과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도 필요해지고 있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공개된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책임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며, 시정의 방향성에 관한 의론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시민의 시정참가의 구조와 형태를 조속히 정비해 간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실현과 시정운영의 효율화가 도모됨과 함께, 시민과 행정과의 상호신뢰 관계도 구축되어 감과 함께 갖가지의 곤란도 극복해 갈 수 있다.

제 2장 시정참가의 주체와 그 형태

시정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이며, 시민은 시장과 사회의원을 선출한다. 시장은, 시민의 의향에 입각한 시정추진의 방침을 제시하면서, 그 리더십과 실행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사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의사기관이며, 행정이 시민의 의향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시민의 부탁을 받은 시장과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에 있어서 자동차의 양바퀴와 같은 역할을 각각切实하게 감당한다.

최근 들어, 시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짐과 함께, 지역주민간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구조를 갖추며 주민 스스로가 공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가지 규모,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종래의 자치조직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조직된 다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여러 시민활동이 형성되어 오고 있다.

고도의 정보사회 속에서, 시정참가 형태는 점차 다양해져 가며,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참가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기업, 대학, 종교법인, 민간 비영리단체 등 각종 법인·단체의 활동은, 금후에 있어 한층 더 중요함을 더해가게 된다. 이러한 법인·단체는, 우리들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도시의 일원이며, 행정은 이러한 조직에의 지원을 여러 각도에서 행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과 행정이 애릴게 서로 자극하며, 함께 적극적인 의사와 책임을 가지고 도시운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구축해 온 우리 교오또시민의 자유와 자치전통을 더욱 빛전시켜, 바야흐로 여러 형태로 나타난 시정참가의 쪽들, 파트너십, 즉 시민과 행정과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관계로 배양해 갈 필요가 있다.

시민의 시정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결정, 시책의 실시와 평가의 전 단계에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입안에 조음하여, 정책의 선택여지와 충분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짐과 함께, 때에 따라서 시민이 직접 의견을 주장하고,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짜임새도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가능한 한 존중되는 가운데 입안되며, 결정된 정책에 의기한 개별 시책의 실시단계에 있어서도, 시민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시민이 시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행정은 그러한 실시결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행할 때 비로소 시민과 행정과의 파트너십이 확실하게 구축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정보 미디어의 활용이나 워크숍 등의 합의형성 수법의 활용, 지역별 과제에 따른 치밀한 참가 등 여러 장과 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참가를 위한 수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시민과 시정의 두터운 신뢰관계 구축

시민은, 사회의 여러 그물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한 공공의 일을 바람직한 형태로, 더우기 공평히 운영해 가기 위해서, 우리 교오또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시정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며,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한편, 스스로 책임을 지며, 부담도 받아들인다.

시민의 책임 있는 행동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시점에 서서, 시민의 의사와 제안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정리·평가하고, 그 위에, 그것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정리하고 실행해 갈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은 스스로의 행·재정의 본질을 늘 재고하는 용의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행정은 매개역으로서 시민에 의한 사회생활상의 네트워크 만들기, 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며,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곧 바로 시민의 사회적 활동을 여러 각도에서 지지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의 본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적 행정의 개선이 필요함과 함께, 시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 지역의 독자성을 살려가면서 의사결정을 행하며, 또한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區) 레벨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분권 연구가 불가결하다.

우리 교오또시민은 교오또가, 이러한 시정참가의 이념을 가장 충실한 형태로 실현하는 마을로 만든다. 이를 함께 지향해 가는 가운데, 시민과 행정과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간다.

맺음말

우리 교오또시민은, 우리가 바라는 금후 생활과 마을조성을 교오또시의 기본구상으로서 여기에 제시했다. 교오또시는, 이러한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시정의 각 분야에서 구체화하고 꾸준히 실시해 감으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을 도모한다.

교오또시의 새로운 기본계획 책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신 의견은, 사무국에서 정리한 다음 「교오또시기본구상등심의회」에 자료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은, 아래로 우송 또는 팩스, 전자메일 중의 한 방법으로 보내 주십시오.

또한, 지장이 없으시면, 거주지의 구(區)명·성별·연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우 송 : 〒604-8571 교오또시 종합기획국 정책기획실(주소 기재 불요)

팩 스 : 075-212-2902

전자메일 : vision21@city.kyoto.jp

U R L : <http://www.city.kyoto.jp/sogo/seisakukikaku/vision21/>